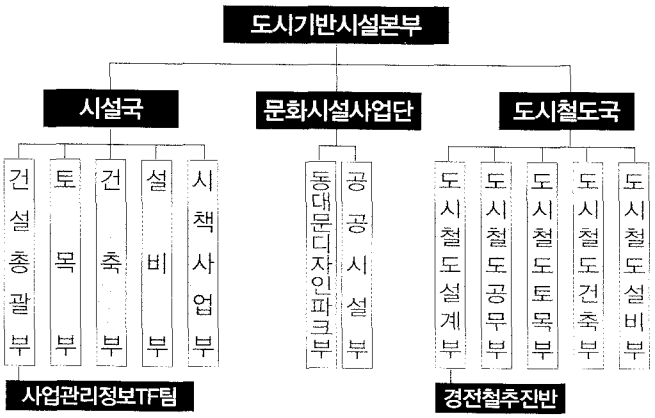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자랑하는 서울 조성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본부장 송득범)는 서울시의 도로와 교량, 지하철 및 경전철, 주요 공공건축물 등의 건설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의 사업으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논현동~종합운동장) 및 3단계(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의 가치와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격의 도시인프라를 건설하여 세계 5대 도시로의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국(시설국, 도시철도국) 1단(문화시설사업단) 12부로 구성되어 있다.

▼ 조직도



시설안전국 설비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인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실천하는 중추 부서로 서울의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물의 전기, 기계, 통신, 소방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창의적인 업무실행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기능과 환경이 조화되는 공공시설물 건설, 원가절감 및 효율적 예산집행,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비부는 김수철 부장을 중심으로 5명의 과장을 포함하여 40여명의 기전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비부 부장 김수철	
열빛총괄과 과장 박기형	열빛총괄과 업무 총괄
환경설비과 과장 전혁기	환경설비과 업무 총괄
건축설비과 과장 김현근	건축설비과 업무 총괄
녹색성장과 과장 김창균	녹색성장과 업무 총괄
시책사업과 과장 이홍복	시책사업과 업무 총괄

설비부는 현재 △환경개선사업분야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등 5건, △공공건축물 사업분야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시설개선사업

환경시설 개선사업은 시민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시공사	비고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고도처리 90만톤/일	2009.01~ 2012.01	781	코오롱 건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난지물재생센터고도 처리시설 (분뇨탈취포함) 설치사업	고도처리 86만톤/일 분뇨탈취 4,500㎘/일	2009.07~ 2012.04	481	태영 건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고도처리 88만톤/일 시설현대화 25만톤/일	2007.06~ 2013.12	2,899	GS 건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책사업부 주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2007.06~ 2015.06	3,996	대림 산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책사업부 주관)
수소스테이션 건설공사	수소생산 30Nm³/h	2009.01~ 2010.11	67	SK 건설	설계시공 일괄입찰

편익증대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장조건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고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효율적이고 현장조건에 적합한 설계 반영과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기술이 축적된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 책임소관에 대한 충분한 기능유지와 예산절감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성 및 적절한 수행, 설계작업의 표준화(설계계획~설계변경), 특수한 기술 및 공법 요구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공공건축물 건설사업

설비부는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공공청사, 직원 후생복지시설 건설, 의료 · 복지시설 건설, 문화 · 교육시설의 기전설비를 맡고 있다.

설비부는 특히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위해 LED광원의 보급 확대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설비부는 최근 '형광등기구 대체용 LED 등기구 설계기준'을 확정하고 앞으로 이 기준에 따라 형광등기구 대체용 LED 등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비부는 그동안 LED 등기구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설계 · 시공 현장은 물론 공공기관의 LED조명 담당자들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부가 이번 LED 등기구 설계기준을 만들면서 작성한 '형광등기구 대체용 LED등기구 설계기준' 보고서는 2011년도 시정 연구논문 우수논문으로 책정될 만큼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시설물 건설

도로시설물 건설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 등의 기전설비 건설사업이다.

설비부는 도로조명 및 교통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도시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접근성의 개선 · 보완이다.

"40여년간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온 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김수철** 부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김수철 부장은 설비시공 업계에 "명품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을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설비부를 이끌고 있는 김수철 부장은 40여명의 기전직 직원들과 함께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비를 도맡아서 쾌적한 서울시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설비부가 하는 일은

흔히 관에서 만든 건축물은 민간이 만든 것보다 질과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쇄신시키기 위해 설비부는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 아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새로운 지식습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과 개선제품이 나오면 검증을 거쳐 시공과정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IT시대인 만큼 공무원이라고 변화에 뒤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LED 등기구 설계기준'도 이런 맥락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동안 건축물 조명등기구의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형광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대체, 설치할 수 있는 설계기준이 없어 보급 ·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LED 등기구 설계기준 마련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일반조명등의 LED보급 목표를 2012년까지 30% 이상, 2020년까지 100% 조기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설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설비부 담당 직원들은 7개월간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의 조명 에너지 사용량과 설치현황, 사용 실태를 조사 · 분석했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광 측정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제 조명의 데이터값을 설명하는 'IES파일'을 비롯해 '이용률표', '배광특성' 등의 자료를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설계기준 보고서가 시정연구논문 우수논문으로 채택되어, 그동안 직원들이 고생한 것을 상쇄시키는 보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설비부는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녹색성장 추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계직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보람은

지난 40여년간 기계직에 종사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게임을 치르기 위해 기자촌과 선수촌 아파트, 경기장 건설 등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일했던 것입니다. 올림픽을 치른 후 우리나라의 위상은 급격히 성장했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제 땀방울이 녹아 있다는 자부심은 지금까지도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또 서울대공원을 조성할 때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서울시민이 애용하는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강물의 정화작업은 인간의 환경복원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과거 똥물에 비교될 정도로 더러웠던 한강물이 서울시의 끊임없는 정화작업으로 지금은 맑은물이 흐르고 많은 물고기들이 되돌아왔으며, 수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서울시 직원으로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서기회를 이끌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지난 40여년을 서울시 기계직에 근무하면서도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고, 또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기계직에 대한 동질성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계직도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필요로 하여 지난 2009년 서기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구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다 보니 1년에 한번 있는 총회마저도 참석치 못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회원들 대부분은 소속감이 있어서 긍지를 느낀다고 합니다. 초대 회장으로서 기계직 직원들의 이러한 바람을 한데 모을 수 있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서기회를 더욱 발전시켜 후배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서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에 한말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가 서울에만 2천여 회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특히 설비건설업은 전기 통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하도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저가하도급으로 어려운 현실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의 협력업체로서 명품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을 지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가하도급으로 시공한다면 숙련된 기능공을 쓸 수 없으며,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하자발생으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구나 설비분야는 하자발생이 많은 공정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물을 준공하고 3년 동안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면 그 공사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합건설사만 배불리는 꼴이 되는 저가수주는 기필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부장은?

- 1978년 7월 서울시 입사
- 주요 근무처
  - 서울시 재무국 영선과
  -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설비부
  - 서울시 올림픽 준비단 설비담당관
  - 서울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사설관리부장, 구의 정수소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장(현재)